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안내

-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좌(대포통장)**를 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거나(대면편취), 상품권 PIN 번호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피해** 사례 다수 발생
  - 특히, 20대 대학생(여성 다수)들을 상대로 수사기관(검찰, 경찰) 및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나는 보이스피싱에 당할 리 없어” 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곧 나에게도 들이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대비 필요

### [사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 금융사기로 조사나, 어플설치 요구하는 경우

- 모르는 번호(010~/02~/등)에서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가 와
- “00지방 검찰청 000수사관 또는 000검사입니다. XXX를 아십니까? XXX씨를 금융사기범으로 검거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YYY씨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확인되었습니다. AA은행, BB은행에서 계좌 개설한 적이 있나요? 일단 본인 명의의 계좌를 모두 동결하였고, 범죄 수익금 연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를 통해 문화상품권(또는 구글기프트카드)을 구매하고, 구매가 된다면 범죄자금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 확인하고 환수할테니 카카오톡으로 핀번호를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시 강제수사(체포 또는 구속)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YYY씨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구속영장 사진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 **이러한 요구의 일환으로 팀뷰어 어플, 알 수 없는 URL 링크 클릭으로 어플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핀번호 등 보내는 순간 사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20대 대학생의 경우** 사회 경험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 당사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위조(일반인이 볼 때 그럴듯한)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발부 되었다면서 사진으로 전송 해 보여주고 수사에 협조하라는 식으로 겁을 주면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이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 발생이 심각한 상황**
  - 위 사례 같은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어플을 설치했다면 다른 전화를 이용) **112 또는 182 등으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
  - 실제 수사기관의 경우 대상자가 범죄와 연관이 되었다면 **출석요구를 하지, 현금이나 상품권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